

도시지역 일부 노인에서 지역사회 식품의 접근성 측면에서의 식품환경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양 나 래¹⁾ · 김 기 량^{2)†}

¹⁾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생, ²⁾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Qualit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Community Food-accessibility Environment among Urban Older Adults

Narae Yang¹⁾, Kirang Kim^{2)†}

¹⁾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Graduate Student

²⁾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Kirang Kim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Dankook University,
119, Dandae-ro, Dongnam-gu,
Cheonan 31116, Korea

Tel: (041) 550-3472
Fax: (041) 559-7955
E-mail: kirangkim@dankook.ac.kr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2019R1A2C1084372).

Received: April 1, 2020
Revised: April 16, 2020
Accepted: April 17, 2020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plored the community foo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food purchasing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for the elderly as well as the various food environments under their socioeconomic diversity.

Methods: For the qualitative data collection, this study interviewed 20 elderly people aged 65 years or more, who participated in a public health program or lunch services operated by the senior welfare center in Seoul. Five dimensions, such as availability, physical accessibility, affordability, acceptability, and accommodation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were used to identify the community food environmental factors.

Results: The elderly participants showed overall similarities to the concepts derived from existing studies on the five dimensions of food accessibility environment. In addition, other important food accessibility environmental factors that were not present in previous studies, such as acceptability for a product of domestic origin, delivery service to home, and small-packaged food sales, were derived.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some subjects differed depending on the household income and specifically for the physical accessibility concept. This showed that the close distance factor from a grocery store at home might not apply to older adults in low-income households in Korea.

Conclusions: This study found that five dimensions of the food environment suggested by previous studies could also be applied to vulnerable older adults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would affect the perspectives of their local food environments different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help in the development of tools for evaluating the community food environment.

Korean J Community Nutr 25(2): 137~149, 2020

KEY WORDS food environment, older adults, income level, urban, qualitative study

서론

경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식생활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1] 가공식품과 간편식의 섭취가 증가하고 동물성 식품과 정제된 식품의 사용 증가로 다양한 만성질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2]. 특히 노인에서 영양 상태는 정상적인 노화와 만성질환의 관리 및 예방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대부분의 노인 대상 연구에서는 식품 및 영양소 섭취의 결핍 또는 과잉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만성질환의 관리 및 예방을 위해서는 식품 섭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선택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건강한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식품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3-7]. 식품환경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점에 대한 가용성 (availability)과 접근성 (accessibility), 식품 구매력 (affordability)의 영역을 포함하고 [8-9], 이는 건강한 식품 선택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만성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5, 7, 10].

식료품점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의 감소는 건강한 식품을 섭취함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불건강 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또한 건강한 식품 섭취의 감소를 가져왔다 [11-12]. 그러나 이러한 식품환경의 영향은 사회경제적 수준, 지역, 인종, 성별에 따라서 그 영향 정도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13-16]. 특히 도시와 농촌과 같이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식료품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식품 선택 및 섭취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8, 17-18]. 또한, 식품환경 측정 방법에 따라 식품환경과 식사 섭취와의 상관성에서 다른 결과를 보였다 [17, 19]. 따라서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환경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내 식품환경의 다양한 요인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중요하다.

국외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매우 미비하다. 특히, 건강한 식품을 판매하는 식료품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는 도시에서 영양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의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환경의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는 이들의 향후 영양 중재 전략의 근거 자료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이용

하여 도시 일부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에서 의미 있게 제시되었던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환경 요인을 기반으로 노인들의 식품환경 요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식품환경 인식의 다양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마포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보건 프로그램 또는 점심 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질적자료 수집을 위해 2018년 12월 한 달 동안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다. 개인 심층 면접을 위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미리 전화로 연구목적, 면접 방법, 질문 내용, 면접 소요 시간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녹취에 동의한다는 서면 동의를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프로토콜에 따라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반구조적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심층 면접에 의한 자료 수집은 Glass & Strauss [20]가 제시한 이론을 기반으로 더는 내용의 주제를 발전시킬 관련 요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자료의 포화 시점에서 완료되어 최종적인 면접 대상자는 20명이었다. 본 연구의 모든 과정은 단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사전승인 (IRB 2016-08-008-006)을 받고 진행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심층 면접 내용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회인구학적 요인, 주요 식품구매 장소, 가장 자주 식품을 구매하는 식료품점의 인식 및 이용 원인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었다. 지역사회 식품의 접근성에 대한 식품환경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존에 국외에서 지역사회 식품의 접근성 환경 측정을 위해 제안된 5개의 영역 [17]인 가용성 (availability), 물리적 접근성 (accessibility), 가격 적정성 (affordability), 수용성 (acceptability), 편의성 (accommodation)을 참고하였다. 국외에서 제안된 식품환경 요인들 이외 국내에서 추가로 도출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제한하지 않기 위하여 식품구매 형태 및 식품구매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우선적으로 질문하였고, 기존 국외 연구에서 의미있게 제안된 지역사회 식품의 접근성 영역에 대한 국내 노인들의 인식이 영역별로 유사성 및 차별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심층 질문으로 이어졌다 (Table 1). 가용성은 건강한 식품을 판매하는 동네 식료품점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물리적 접근성은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식료품점 이용 여부, 가격 적정성은 동네 식

Table 1. In-depth interview questions

-
- Where do you regularly shop for foods?
 - Why do you prefer this grocery store to others?
 - What factors have the biggest influence on your decision to shop at the grocery store where you buy most of your food? Is there any reason other than the low price?
 - Are there enough grocery stores in your neighborhood?
 - Could you be easy to get to the local grocery stores?
 - Are you able to pay for foods that are available in grocery stores in your neighborhood?
 - What would be your good standard to choose grocery store to buy foods? How do you decide which foods are most important to buy?
 - What do you think about how well local food groceries accept and adapt to local resident's needs? What is the most convenient factors about a grocery store which you go to most often?
 - What is the most satisfactory factors of your local grocery store?
 - When you answered the grocery store questions about your neighborhood, how much did you think about your neighborhood coverage?
-

식품점에서 판매하는 식품 가격이 적절한지, 수용성은 동네 식료품점에서 판매하는 좋은 식품에 대한 기준의 인식, 편의성은 동네 식료품점이 대상자의 요구도, 만족도에 상응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외에 식품구매 행태 및 식품구매 환경에 대한 인식은 대상자가 주로 이용하는 식료품점,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식료품점을 활용하는 이유, 대상자가 인식하는 동네의 범위 등을 포함하였다. 주요 질문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질문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심층 면접은 복지관 내 상담 장소에서 진행하였고, 면접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이 끝나면 녹음된 자료를 통해 면접 내용을 정리하고 대상자로부터 더 필요하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있었던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 향상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2인의 연구자가 비논리적인 내용이 있는지 상호 교차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다.

3. 자료 분석

연구 참여 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는 일반가구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모든 질적자료는 필사를 거쳤으며 필사된 자료는 질적 분석의 특성에 따라 코딩을 하고 범주화하였다. 코딩 과정의 객관성을 위하여 연구진은 필사 내용을 각각 따로 코드화하고 해석하여 함께 검토하는 분석 과정을 거쳐 범주를 보완하였다. Strauss & Corbin[21]이 제시한 개방코딩 과정을 통해 기록된 자료는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단어, 문장으로 구분하고, 문장의 해석 내용에 따라서 내용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내용들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안된 식품환경 주요 5가지 영역과 매칭하여 분류될 수 있어, 이를 주제(theme)로 선정하고, 주제별로 구체적인 의미로 도출된 내용은 부주제(sub-theme)로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또한 영역별 부주제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인식의 차이가 보이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주제별로 조사대

상자가 언급한 내용 중 의미 있는 내용은 인용문으로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0 Program (IBM SPSS INC,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평균(연속형 자료)과 백분율(범주형 자료)을 구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식품구매 행태

연구 참여자는 20명으로 남자 10명(50.0%), 여자 10명(50.0%)이었고, 평균 연령은 76.1세(69~87세)이며, 일반가구 대상자는 9명(45.0%), 저소득가구 대상자는 11명(55.0%)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월평균 식품구매 비용은 228,056원이었고, 일반가구 대상자는 1,165,000원, 저소득가구 대상자는 105,909원이었다. 자주 가는 식료품점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로는 전체 대상자에서 슈퍼마켓이 39.4%로 가장 많이 간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가구 대상자에서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대형마트를 고루 이용하였고, 저소득가구 대상자에서는 전통시장, 슈퍼마켓을 고루 이용한 반면 대형마트 이용자는 1명이었다(Table 2).

2. 소득수준에 따른 지역사회 식품의 접근성 요인에 대한 인식

도시 일부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식품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식품의 접근성 요인에 대한 인식을 심층 면접한 결과,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지역사회 식품환경 영역인 가용성, 물리적 접근성, 가격 적정성, 수용성, 편의성에 해당하는 5개의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고, 5개의 주제로부터 11개의 부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3).

1) 가용성

(1) 동네 식료품점의 충분함

대부분의 노인 대상자들은 집 주변 동네에 식료품점이 충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ll (n=20)	General households (n=9)	Low income households (n=11)
Sex			
Male	10 (50.0)	4 (44.4)	6 (54.5)
Female	10 (50.0)	5 (56.6)	5 (45.5)
Age (years)	76.1 ± 5.5	74.3 ± 4.7	77.5 ± 5.9
Food purchasing frequency			
4~6 times/week	2 (10.0)	1 (11.1)	1 (9.1)
2~3 times/week	10 (50.0)	5 (55.6)	5 (45.5)
1 times/week	6 (30.0)	2 (22.2)	4 (36.4)
1 time/month	1 (5.0)	0 (0.0)	1 (9.1)
No response	1 (5.0)	1 (11.1)	0 (0.0)
Food expenses (won/month)	228,056 ± 301,100	1,165,000 ± 513,647 ¹⁾	105,909 ± 95,179
Frequently used grocery stores ²⁾			
Traditional market	12 (36.4)	5 (29.4)	7 (43.8)
Supermarket	13 (39.4)	6 (35.3)	7 (43.8)
Super supermarket	6 (18.2)	5 (29.4)	1 (6.3)
Others	2 (6.1)	1 (5.9)	1 (6.3)

n (%) or Mean ± SD

1) n=7, Two persons didn't respond because they didn't know about exact food expenses.

2) Multiple responses

Table 3. Factors related to community food environment for older urban adults

Theme	Sub-theme
Availability	· Sufficiency of nearby grocery stores
Accessibility	· Utilization of grocery stores of 5-10 minutes walk · Utilization of a traditional market near the subway
Affordability	· Lower food prices at traditional markets than local grocery stores · Differentiated strategies by household income level for economic and reasonable food purchase
Acceptability	· Freshness of foods · Product of domestic origin · A variety of food sale · Delivery service to home
Accommodation	· Small-packaged food sale · Promo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

분히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저소득가구 노인 대상자들도 동네 식료품점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식료품점의 식품 가격 때문에 집 주변의 식료품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었다.

“그 우리 집 길 건너서 하나마트가 있고 또 원... 뭐 우리 쪽으로 그 원플러스 뭐 그게 마트가 그래도 좁은게 두 개 있어요. 쓸만하게. 대체적으로 다 갖추어 놓은게 두 군데 있어요.” (일반가구 참여자 L3)

“*(마트까지)* 우리는 5분도 안 걸리지마는, 너무 잘 되어있

어요. 우리는 내가 사는 곳이 제일 좋아. 홈플러스도 망원시장 여기도 5분~10분이면 가거든. 동네 식품환경이 좋아요. 너무 가깝다. 다양하게 내가 다 골라 먹을 수 있다. 그거지 뭐.” (일반가구 참여자 K2)

“물건은 무조건 충분해요. 이마트, 뭐 마트 충분해요.... 돈이 제일 문제지.” (저소득가구 참여자 K3)

“동네는 뭐 어디든지 이마트, 홈플러스건 다 있어요. 그러니깐 여기 마포구 참 좋아요. 여기 사람들 다 여기 살아요. 근데 뭐든지 근데 재래시장 가는 사람들 많아요. 싸잖아.” (저

소득가구 참여자 L)

“(우리 동네에는) 급하면 건너편에 가게 있는데, 가게 커. 구멍가게인데. 글썽 거 가서 파도 2천 원 사고... 대형마트도 다 있어요. 우리는. 내 동네에 먹는 거 마트 같은 데 식료품이 다 있어요. 뭐 고기, 소고기, 푸줏간에 뭐 안 들어서 있나... 다 있는데 비싸서 못 사 먹어요.... 마트 가면 비싸니까 마트 같은 데는 못 가요.” (저소득가구 참여자 H1)

2) 물리적 접근성

(1) 걸어서 5~10분 내외 거리의 동네 식료품점 이용

일반가구 노인 대상자들은 집과 거리가 가까운 동네 식료품점을 이용하였는데, 대부분 걸어서 약 5~10분 내외에 있는 식료품점이었고, 일부 노인 대상자는 거리가 멀다고 인식하는 식료품점은 안 가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저희는 우리 아파트 옆에 큰 마트가 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집에서 뭐 5~6분, 7~8분 되면은 가게 되어있어서 거기를 많이 이용해요. (일반가구 참여자 K1)

“우리는(마트까지) 10분도 안 걸려.... 바로바로 아파트 앞이야... (중략)...우리는 재래시장은 멀어서 안 가요.” (일반가구 참여자 S2)

“(마트까지) 우리는 5분도 안 걸리지마는, 너무 잘 되어있어요. 우리는 내가 사는 곳이 제일 좋아. 홈플러스도 망원시장 여기도 5분~10분이면 가져든. 동네 식품환경이 좋아요. 너무 가깝다. 다양하게 내가 다 골라 먹을 수 있다. 그거지 뭐... (중략)... (유기농 식품 판매점은) 유기농을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는 막 생긴 그대로 막 올 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했는데, 조금 멀어요. 거기는 썩~끔 멀으니까 안 가지게 돼.” (일반가구 참여자 K2)

(2) 지하철 인접의 재래시장 이용

저소득가구 노인 대상자들은 식품구매 장소 선택 요인으로 물리적 거리의 영향은 낮았다. 집으로부터 거리가 다소 멀더라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경향이 컸는데, 물리적 거리의 영향이 낮은 이유로는 시장의 식품이 저렴하다는 인식,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나는 몸이 안 좋으니까 가까운 데로(가고 싶지)... 내가싼 거 인자 덩기면서 사지. 비싼 건 못사니까. 가까운 마트 같

은 데는 이제(못 가).” (저소득가구 참여자 B)

“동네 마트, 우리는 한 10분 걸지. 보통은. 동네에서 사는 게 더 좋지. 동네 사람을 위해, 근데 동네는 비싸니까 시장을 가는 거예요.” (저소득가구 참여자 H1)

“근데 뭐든지 근데 재래시장 가는 사람들 많아요. 싸잖아.... 망원시장, 공덕시장... ‘지하철 근처에 있다.’ 그러면 남대문시장, 중앙시장, 동대문시장, 청량리 시장...” (저소득가구 참여자 L)

“나는 1분 거리에 있어요. 마트가 1분 거리에, 근데 거길 못 가는데... 공산품은 공산품대로 가격 차이가 나요. 대형마트를 가면 우리가 뭐야... 세제를 사더라도 똑같은거라도 가격이 틀려요. 동네마트는 비싸... (중략)...그래도 싸다고 그러면 전철 타구요. 한 이십 분, 십분... 공짜니까, 그싼 거 바람에 가는 수도 있어요. 진짜. 지하철이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한 시간 걸리는 거리도 가요. 나는... (중략)...싼데를 찾아다닌다니까.” (저소득가구 참여자 H3)

3) 가격 적정성

(1) 동네 식료품점보다 재래시장에서의 더 저렴한 식품 가격 노인 대상자에서 식품 가격은 식품구매 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상자들 모두 동네 식료품점보다 재래시장의 식품 가격이 더 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래시장이 가격대비는 괜찮아요. 싸고.” (일반가구 참여자 L2)

“물건을 조금 많이 사고 또 싸게 사고 싶으면 요 망원시장까지 옵니다. 망원시장에서는 싸고...” (일반가구 참여자 K1)

“과일 같은 것은 뭐... 망원시장이 가장 싼 것 같아요.” (저소득가구 참여자 K1)

“경동시장도 뭐 것갈류 같은 거 뭐 이것 좀 싼 편이거든요. 경동시장에 뭐 생선도 사고 뭐 이런 갈치 이런 거 사러 갈 때... 갈치... 경동시장까지 갑니다.” (일반가구 참여자 L1)

“재래시장 같은 곳은 많이 모이니까 고객이 많이 모이니까 좀 싸게 팔고, 가격이 저렴하게 팔면서 많이 소비하니까 그렇게 매상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고 동네 마트는 고객이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싸게 팔 수가 없어 생각에. 내 생각

에는 그래요... (중략)... 비싸요. 집 앞에 사는 게.” (저소득가 구 참여자 L)

“나는 망원시장 가서 만 원어치 야채 사면은 많이 주니까 상추도 천 원어치 뭐... 오이도 천원어치 뭐... 골고루 사다가 그냥 한 달 동안 그 반찬 해 먹는데 쉬어서 먹어요. 우리 동네에 그런 게 없으니까 마트 가면 비싸니까 시장으로 가고... 동네슈퍼는 과일도 지금 비싸고 뭐든지 다 비싸. 식품 같은 거는 다 비싸.” (저소득가구 참여자 H1)

(2) 경제적, 합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에 따른 소득수준 별 식품구매장소 선택 및 전략

일부 일반가구 노인 대상자들은 재래시장의 식품 가격이 싸지만, 재래시장에서의 싼 제품은 대량구매를 유도하여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재래시장에서의 구매를 꺼리는 면도 있었다. 저소득가구 노인들은 일반가구 노인과 유사하게 충동구매를 유도한다고 인식하는 대상자도 있었으나 대부분 식품 가격이 저렴하다고 인식하는 시장에서 주로 구매를 하였고, 식품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동네 식료품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신선도가 감소하여 할인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해당 식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하는 경우였다.

“마트가 약간 비싸기는 해도 재래시장에서 싸서 많이 사다 놓고 다발로 사다 놓고 버리는 것보다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당근이면 당근 하나 사고 파도 이만큼 묶여진 것 소량 사고 이런 것이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는 더 경제적이고 좋은 거라... 시장에 가면 막 이렇게 무조건 봉지로 이렇게 이렇게 담아가지고 사니까... 그니까 그게 오히려 손해예요. 그게 싸다고 해도 오히려 나한테는 비싼거예요.” (일반가구 참여자 K2)

“내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는 백화점이든 농협이든 늘 자주 가잖아요. 가면 품목 품목마다 세일할 때가 있어요. 쌀도 세일하고 찹쌀도 세일하고 전분도 세일을 잘 활용해요. 근데 시장을 가면 욕심이 나더라구요. 자주 안 가는데 싸니까 좌우지간 많이 사... 과일도 그렇고 예를 들어 생강도 그렇고 샀는데... 근데 또 많이 사놓으면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일반가구 참여자 L3)

“좀 싸고 이러면은... 그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충동구매를 하게 되어요. 가다보면은 안 좋고 싼 게 있으니까.” (저소득가구 참여자 K1)

“우리 동네에 그런 게 없으니까 마트 가면 비싸니까 시장으로 가고... (중략)... 마트 같은 데는 못가요... (중략)... 마트는 안 팔면 이제 자기 손해니까 파는 거지. 이제 물건이 삼사일 정도 지나면은... 마트들은 세일을 많이 해요.” (저소득가구 참여자 H1)

“내가 싼 거 인자 땀기면서 사지. 비싼 건 못사니까. 마트 같은 데는 이제 (못사)... 싸고 혼자 사 먹고... (대형마트는) 뭐 만 원 이만 원 가지고 가서 살 게 없잖아요... 나는 이제 오늘 (마트) 물건이 싱싱하고 비싸다 싶으면은 내일 가면 천 원이 싸져. 떨어져.” (저소득가구 참여자 B)

“이마트 이런데요. 뭐 천 원짜리 200원 팔 때도 있어요. 한 묶음에 그거는 세일 할 때... 좀 그런데는 대형마트는 유효기간을 잘 따져요.” (저소득가구 참여자 H3)

“반찬도 먹는 데 없고, 그냥 할머니들이 파는 데 농협 같은 데 가면 비싸니까 그냥 할머니들 노점에서 파는 데서 그냥 호박, 가지, 그런 거 사다 먹어. 야채... 마트는 하루 이틀 지나면 딸이로 파는 거지. 싸구려로. 그리고 안 팔리는 게 많으면 전단지같은 거 돌리잖아.” (저소득가구 참여자 H2)

4) 수용성

(1) 식품의 신선도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식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식품의 질을 언급하였는데, 이때 식품의 질은 식품의 신선도를 의미하였다. 식료품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신선도에 대한 인식은 일부 노인 대상자를 제외하고, 동네마트를 이용하는 일반가구 노인 대상자에서는 동네 마트의 식품이, 시장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노인 대상자에서는 시장의 식품이 더 신선하다고 생각하였다. 대부분의 노인 대상자들은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식료품점에서 파는 식품들이 신선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식료품점이 상반되는 경향이 있었다.

“외관상 신선하게 보이고 맛이 있어야 하고 식품이라는 게 맛으로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식품을 살 때는) 그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 아파트 옆에가 큰 마트가 있는데, 마트가 비교적 굉장히 상품도 좋고...” (일반가구 참여자 K1)

“마트가 있어요. 물건도 좋아요~ 매일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싱싱해요.” (일반가구 참여자 L2)

“아니 저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은평구에 OO 마트가 있어요. 산지에 직접 자기네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구매를 해가지고 신고 와서 신선하지. 신선하고 가격을 싸게 받는 거야. 그러니깐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야...” (일반가구 참여자 L1)

“신선한 식품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구매하면은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골라요. 그래가지고 좀 물건도 싸야 되고 신선도가 좋은 거를... (길거리에 파는) 그런 분들이 이제 뭐 풋고추라던가 뭐 그 무슨 무슨 뭐 콩 같은 거라던가 풋콩 같은 거를 가져와요. 신선도가 좋은 거. 그런 걸 내가 사다 먹고 그러거든요.” (일반가구 참여자 S1)

“시장가서... 제품이 싱싱하구요. 마트 그런테는 유리에다 놓고 며칠씩 놔두잖아요. 시들지 않으니깐... (길에서 파는) 그 할머니들은 그냥 밭에서 매일 뽑아왔고 뭐 묶어오니까는 싱싱해요. 길에서 파는 게 대개.” (저소득가구 참여자 H2)

“우리네야 뭐 싸고 싱싱한 거지 뭐... 싸고 싱싱한 거. 우리 망원시장에는 저기 그 채소 같은 것도 싱싱한 편이지 뭐 아주 저기는 아니니까. 근데 그런 마트 같은 경우에는 싱싱하지 않을 적이 더 많지. 동네 위주로다 팔고 시장은 여러 각 동네에서 모이는 데니까 물건이 그날 팔리고 물건이 싱싱한 게 그날그날 들어오니까 괜찮지. 시장이. 마트 같은 데는 그냥 저기서 계속 팔아야 되니까 시장만큼은 안 좋지.” (저소득가구 참여자 H1)

“마트보다 시장이 조금 더 나아. (마트는) 장사하는 과일이 썩은 것도 있어.” (저소득가구 참여자 B)

(2) 원산지가 분명한 국산 제품

대상자들은 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 국내 원산지의 식품을 판매하는 식료품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래시장보다는 마트에서 국산 제품을 판매할 것이라는 신뢰가 더 높았다. 소포장으로 껍질을 벗긴 채 판매하는 채소 제품은 원산지가 불분명하므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었다. 일반가구 노인 대상자들은 산지 직송 제품이나 생협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높았다.

“과일 같은 거는 지나다니다 우리 집 옆에서 팔면 사기도 하고... 과일은 아예 뭐 귤이나 사과나 배 같은 거는 다 국산이잖아요. 뭐 그런 거 석류는 아예 수입품이고 그러니깐 그런 거는 보고 사는 거예요.” (일반가구 참여자 L3)

“그냥(마트) 거기는 국산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 때문에 가는 거고. 그 망원시장이란 옆에 시장 있잖아요. 우리 집도 건너가면 모래내 시장 있는데 거기 가서 예를 들어 파프리카 같은 거 하나 사면 국산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두레 생협 같은 거. 그건 정말 믿을 만한데.” (일반가구 참여자 L3)

“거기는 두레 생협 가면 좋은 것 많아. 우리 합정동이나 망원동은 그런 게 너무 잘 되어있어요. 두레 생협이라고 유기농만 파는 데가 있어요. 협력해가지고 회원가입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인가 주고 회원가입을 했어요.” (일반가구 참여자 K2)

“두레 말고 저기 경희천 숲길 있는데 거기다가... 성미산... 학교... 그 저기 거기 성미산 아래 가면은 아주 유기농만 파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가구 참여자 L2)

“나는 어디서 조금씩 사느냐면은 그 길거리에 뭐야 그 저 시골에서 가지고 와서 파는 게 있어요. 강화도에서 와서 파는 것도 있고.” (일반가구 참여자 S1)

“우선 이 생산지하고 직거래가 되도록 만들었으면...” (일반가구 참여자 K1)

“(양파 같은 것을) 소포장을 하면서, 까지 않은 게 좋지. 고추도 그렇잖아. 가루로 하는 것보다 고추로 해서 사먹어야지 그걸 믿지. 가루는 진짜 못 믿어... 그냥 믿고 사 먹긴 사 먹지만 귀찮아서...” (일반가구 참여자 S3)

“그리고 채소는 (양파 같은 것을) 안 깎게 좋아요. 믿고 사야지 믿고 사야 되는데...” (일반가구 참여자 K2)

“마늘도 까놓아야... 이렇게 껍질 까놓으면 정말로 국산인지 아닌지 그거는 좀 의심스럽긴 해요. 소량이라도 섞여 들어가니까.” (일반가구 참여자 L3)

“마트는 물건도 성분까지 다 검사해서, 하나로마트는 들어오는 물건이잖아. 근데 여기는 (시장은) 아니잖아. 보증할 수 있는 데를 사야 하는데, 하나로마트는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검사하다가 하자품은 다 내려보내는데... 그거 계산하다 보면은 그렇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저소득가구 참여자 S)

(3) 다양한 식품 판매

사회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대상자들은 식품을 소량 혹은 다양하게 판매하는 식료품점을 선호하고 있었다.

“나는 제일 쌈채... 쌈채소 살 때가 제일 좋더라고. 마트가 조금씩 골고루 조금씩 조금씩.” (일반가구 참여자 K2)

“시장은 이제 좀 식품들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으니까 내가 또 선택하기가 편리하고 그런 점이 편리해서 가끔 시장을 이용하고.” (일반가구 참여자 H)

“ (시장 가면) 조금씩 내가 맘대로 여러 가지 살 수 있으니까... 채소가 다 있지... 채소 종류가 다 있어. 뭐 읊는게 없지. 가지서부터 뭐 시금치서부터 뭐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저소득가구 참여자 H1)

“하나로마트는 다 있지. 없는 게 없지. 그러지 그렇지. 그런데 다양한 거. 야채 같은 거 다 그렇게 판다 하면 (주로서지)...” (저소득가구 참여자 S)

“ (동네 마트는) 다양한 부분도 없고, 물건이 조금 비싸. 과일 같은 거는 다양한 종류가 별로 없고 채소도 없고... 판매보다 조금 더 비싸. 그게 문제야.” (저소득가구 참여자 L)

5) 편의성

(1) 집으로의 배달 서비스

일반가구 대상자에서 집까지 식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는 노인들이 식료품점을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식품 무게에 대한 부담과 건강상의 이유로 배달이 어려운 재래시장보다는 배달 서비스가 제공되는 마트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저소득가구 대상자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에 한해서 배달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으로 인하여 배달 서비스를 대부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반가구 및 저소득가구 모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나이 든 사람들은 재래시장을 선호하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점점... 재래시장 옆에 살아도 갈 이유가 없어... 그 뭐 물 같은 것도 다 배달 시켜서 과일도! 그러면 3만 원만 대면 집 앞에까지 갖다 주니까 그렇게 사서 먹고 있어요.” (일반가구 참여자 K2)

“예를 들어서 망원시장에 가서, 시장에 가면은 배달이 안 되잖아요. 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면 배달되니까 거기서

쌓아놓고 살잖아요. 뭐 한 두를 사는게 아니고 몇 개씩 세일 할 때 사다가 배달시키면 집에 오면은... 세일을 잘 활용하다 보니깐. 그러니까 동네에서 잘 안 사는 거 같아요.” (일반가구 참여자 L3)

“재래시장에서도 배달을 안 해줘. 재래시장은 배달이 없어요. 대형마트는 5만 원 이상을 사야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면 배달을 해줘요. 근데 여기는 동네 마트들은 3만 원 어치만 사면 그냥 배달을 해줘.” (일반가구 참여자 L2)

“그 좀 쪼그만한 거(분량), 그 그런 데는 또 그 배달이 안 되잖아요. 금액이 적어도 그래도 배달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일반가구 참여자 H)

“배달 서비스 개선 그거는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재래시장은 한산하더라고 우리 그 응암시장도... 이렇게 큰 거 생기는 거를 싫어하는거야. 그 쌀 같은 것도 보면 20키로 잼야. 그 것도 배달을 안 해주더라고...” (일반가구 참여자 L1)

“배달문제는 아까 얘기한 게 예를 들어서 동네 슈퍼 같은 경우에도 뭐 3만 원 이상이 되어야 배달을 해주고 저쪽에 이마트 경우에는 5만 원 이상이어야 배달을 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배달문제도 아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소득가구 참여자 K1)

“ (동네 마트에서) 배달은 좋는데 지금 우리 사람들 중에 구매하는 사람들 중에 배달 쓰는 사람이 없어요... 양이 적기 때문에, 근데 양이 적는데 배달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양심에... 해주지도 않고 근데 하는 사람도 없어...” (저소득가구 참여자 L)

“그... 하나로마트에서 사면은 배달을 해주는데 거기 시장에서는 배달은 안 해주잖아... 여기저기 조금씩 사야하니까. 그러다 보면 많이 되니까 이제... 늙어... 나이를 먹다 보니까 드는 거 하지 말아야겠더라고... 지남여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저소득가구 참여자 S)

(2) 식품의 소포장 판매

대상자들은 식품의 소량 구매를 위한 소포장이 잘 되어있는 식료품점을 선호하였고, 소포장 식품 판매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일반가구 노인대상자와 저소득가구 노인 대상자 간에는 식료품점별 소포장 구매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 일반가구 노인대상자는 재래시장에 비해서 동네 마트의

경우에 소포장이 잘 되어있어 소량구매가 용이하나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소량구매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가구 노인 대상자는 재래시장에서 소량구매가 더욱 용이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래시장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단위가 커가지고 갖다 놓으면 버리는 것이 반은 돼요... 그러기 때문에 마트같은 데, 마트같은 데 가면 소량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가구 참여자 K2)

“조금씩 살 때는 시장을 안 가지... 그 마트에 가면은 우리 거래하는 마트는 아주 조금 소포장도 되고... (중략)...소포장 그리고 뭐 접근성이 좋아지면 노인들은 아주 편하죠.” (일반가구 참여자 K1)

“이제 상품을 좀 규격을 그... 독거노인이나 이런 1인이 생활하기에 소규모로 포장을 해서 좀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 (중략)...뭐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이 오래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관은 오래 못하니깐 진짜 그건 소포장화해서 신선한 식품은 약간 가격이 그거 하더라도 살 거야 아마. 신선식품을 다량으로 묶어서 파는 거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시장도 소규모로 포장을 해서 좀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 (중략)...재래시장에 가면은 사과를 예를 들어서 열 개를 묶어서 뭐 오천 원, 2,500원 하면 받을 수 있거든 근데 다른 시장(식료품점)에 가면 전체를 묶어서 파니까 살 수가 없어.” (저소득가구 참여자 K1)

“ (시장 가면) 2천 원어치 다듬어 놓은 거 달라고 하면 주고 그래요. 다른 (식료품점) 가면 뭐 한 단씩 가져가라니까.” (저소득가구 참여자 H2)

“ (시장에서) 자주 조금씩 사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먹어야지.” (저소득가구 참여자 B)

(3) 제품의 홍보 및 정보의 활용

일반가구 노인 대상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료품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 원인으로 좋은 상품이나 할인 상품에 대하여 문자나 전단지 등으로 상품 정보를 받았거나 포인트 제도에 의해 경제적 혜택을 받은 경우였다. 저소득층 노인 대상자들은 전단지 등으로 상품 정보를 받더라도 본인의 주 구매처보다 비싸다고 인식하여 활용을 하지 않거나, 일부 품목만 이용하였다.

“자기가 다니는 마트에서 좋은 상품들이 들어오면 핸드폰으로 문자를 줘요. ‘오늘은 어느 상품 좋은 것 들어왔다고 와 보시라고’ ...품질도 있고 포인트도 쌓여요.” (일반가구 참여자 L2)

“다니는 마트에서 좋은 상품에 대해 그렇게 와. 문자로 와 많이 와. 그리고 또 그쪽을 이용해주면 선물이 있어. 포인트가 쌓여. 아 또 어떤 때에는 전기밥솥도 오고 뭐 또 뭐도 오고 조금만 선물이라도 꼭 보내더라구.” (일반가구 참여자 S3)

“나는... 단골 가게... 그 마트에 딱 정해놓고. 정육점 거래하잖아. 고기 사러 가잖아요. 고기 사러 가면 고기 갈아 놓은 것은 서비스로 줘요. 우리가 단골로 가니까 고기도 좋은 것 주고... OO마트, 농협 이런 데서 상품 정보에 대한 문자가 많이 와요.” (일반가구 참여자 S2)

“우리 생협에도 맨날 그렇게 와 ‘오늘은 뭐가 들어왔으니 사러 오세요.’라고 문자가 와.” (일반가구 참여자 K2)

“농협에서 문자 메시지 오면은 ‘하나로마트에서 언제언제 몇시부터 합니다.’ 하면은 줄 서서 사고 그래요. 버스 타고 가고...” (일반가구 참여자 L3)

“안 팔리는 게 많으면 전단지같은 거 돌리잖아. 그래도 못가. 이런 할머니들한테서 사는 것도 비싸니까... (중략)...근데 세일을 많이 해도 할머니한테 사는 것보다요. 더 비싸요.” (저소득가구 참여자 H2)

“어떻게 저 마트 같은 거 새로 나가지고 뭐한다 그러면은 대개 계란 같은 거 싸게 파니까 계란이나 사러가지. 계란, 콩나물. 딱 거는 뭐... 계란, 콩나물만 사러 가. 그 먼 데까지 가면은... (중략)...콩나물 이렇게 한 뭉탱이 해도 뭐 천원에 팔고 그러니까. 그 개업하는 데에서.” (저소득가구 참여자 H1)

“그 상자에 모아놓고 남은 것도 천오백 원, 천 원에 주니까 그냥 멀어도 기를 쓰고 그거 사러 가는 거야. 계란하고 그런 거.” (저소득가구 참여자 H2)

고 찰

건강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점의 가용성과 접근성 같은 지역사회 식품환경은 건강한 식품 섭취뿐만 아니라 비만을 포함한 다양한 만성질환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되었다[5, 7, 10, 22].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식품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식품환경 요인으로 주변 동네 식료품점이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가격, 거주지에서 식료품점까지의 거리와 같은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23-27].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지역사회 식품환경에 대한 개념 부족과 연구 미비로 국외에서 적용되고 있는 중요한 식품환경 요인이 국내 상황에서도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일부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국외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사회 식품환경 요인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국내에서 추가적인 지역사회 식품환경 요인은 존재하는지, 지역사회 식품환경의 인식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관련된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의 부재로 양적 조사보다는 좀 더 심층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조사 방법론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 노인 대상자들의 식품환경 인식은 국외 연구에서 지역사회 식품환경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제시한 식품의 접근성에 대한 5개의 식품환경 요인[17]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서 일부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우선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일반가구 대상자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대형마트를 고루 이용하고, 저소득가구 대상자는 대부분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슈퍼마켓’은 동일한 종류의 식료품점이지만 소득수준별로 이용하는 슈퍼마켓까지의 물리적 거리는 차이가 있었다. 일반가구 노인 대상자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슈퍼마켓’과 같은 식료품점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저소득가구 노인 대상자는 거리와는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식품 가격이 저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지하철 인접의 재래시장 혹은 시장 내 슈퍼마켓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외 지리적 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기반한 식품환경 연구에서 건강한 식품 선택 및 섭취에 중요한 식품환경 측정 항목으로 제안된 집에서 식료품점의 가까운 거리 요인[9, 11, 17, 28]은 국내 저소득가구 도시 노인에서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흥미롭게도 일부 국외 식품환경 연구에서는 신선한 식료품점까지의 먼 거리와 신선한 식품 섭취 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일치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17, 29-30]. 이러한 이유는 인구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소득가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접근성과 건강한 식품 섭취와는 역의 상관성을 보였고, 특히 농촌 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었다[13]. 본 연구에서 식품 구매 비용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식품 구매 시

가격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시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인식하여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기꺼이 가는 구매 행태를 보였다. 즉, 비용의 제한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식료품점의 폭이 좁았고, 이에 따라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식료품점에서 주로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는 식품환경 요인 중의 하나인 물리적 접근성과 건강한 식품 섭취 간의 불일치한 기존 연구 결과들에 대한 원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지역사회 식품환경이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 증대 됨에 따라 개인과 환경 요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수용성 측면에서 대상자들이 식료품점 선택에 있어서 판매 식품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식품의 질인 신선도를 언급했는데,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신선한 식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언급한 식료품점의 종류가 달랐다. 일부 노인 대상자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먼 거리의 시장보다는 가까운 마트를 이용하는 일반가구 대상자는 동네 식료품점의 식품이 가장 신선하고 재래시장 식품은 신선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가구 대상자는 재래시장의 식품이 가장 신선하고 동네 식료품점의 식품은 신선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반된 인식은 개인의 한두 번 경험에서 비롯된 신념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이러한 신념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식품환경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논문을 체계적 고찰한 연구 결과에서는 식료품점의 가용성과 접근성, 식품 가격의 구매 적정성이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식료품 선택과 식품구매의 핵심 요인임을 확인했다[24]. 특히, 식료품점의 가용성 측면에서는 과일, 채소, 육류의 가용성이 식료품점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핵심 요인 이외에 식료품점의 광고와 제품의 배치, 매장 내 청결 상태, 고객에 대한 응대 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26]. 본 연구에서도 기존 국외 연구 결과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식품환경 요인으로 국산 제품의 판매, 배달 서비스, 소량 포장 판매 여부가 의미 있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국내의 식품구매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만큼 국내 지역사회 식품환경의 고유한 측정 항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외 연구에서 지역사회 식품환경 요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측정된 요인은 접근성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측정된 객관적 방법과 대상자의 인식을 묻는 주관적 방법이 있

다[8, 23, 28]. 일부 연구에서는 객관적 측정 방법보다는 대상자의 인식을 묻는 주관적 측정 방법이 건강한 식품 선택에 더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저소득층 대상자에서 그 관련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19, 31]. 이에 미국의 Glanz 연구팀은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주관적 인식 기반의 영양환경 측정조사 도구(Perceived Nutrition Environment Measures Survey, NEMS-P)를 개발하였다[25]. 개발된 측정 도구에 포함된 지표로는 식료품점과 식당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는 지역사회 영양환경 (community nutrition environment), 식료품점의 가용성과 이용 동기, 과일과 채소의 가격, 건강 또는 불건강 식품의 배치와 광고 여부를 평가하는 식료품점에 대한 소비자 영양환경 (store consumer nutrition environment), 식당에서의 건강한 음식 가용성, 건강한 음식 홍보, 건강한 음식 가격을 평가하는 식당에 대한 소비자 영양환경 (restaurant consumer nutrition environment), 가구 내 과일과 채소의 가용성, 건강 또는 불건강한 식품의 가용성, 건강 또는 불건강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는 가구 내 식품환경 (home food environment)인 4개의 지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료품점에 대한 환경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식당을 포함한 환경 요인까지 고려한 측정 조사 도구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건강한 식품 선택과 식행동은 다수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생태학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환경 요인의 이해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중재 전략을 개발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도시지역 노인들이 식품 선택 및 섭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식품환경에 대한 인식을 사회경제적 수준별로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해석 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일부 도시지역의 편의추출표본 대상자를 대상으로 탐색적 질적 조사의 결과이므로 이러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추출된 요인들이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식품환경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된 영역은 기존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지역사회 식품의 접근성 측면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환경요인들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또 다른 중요한 식품환경 영역 [32-34]들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못한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식품환경에 대한 탐색 연구가 향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부 도시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국외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사회 식품환경 요인에 대한 인식의 유사성 및 차별성을 확인하고, 해당 인식들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반가구 65세 이상 노인 9명과 저소득가구 65세 이상 노인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1) 참여대상자는 평균 연령은 76.1세였으며, 월평균 식품 구매 비용은 일반가구 대상자는 1,165,000원, 저소득가구 대상자는 105,909원이었다. 전체 대상자에서 슈퍼마켓을 가장 많이 간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가구 대상자에서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대형마트를 고루 이용하였고, 저소득가구 대상자에서는 전통시장, 슈퍼마켓을 고루 이용한 반면 대형마트 이용자는 1명이었다.

2) 국외 연구에서 지역사회 식품의 접근성 환경 영역으로 제안된 가용성, 물리적 접근성, 가격 적정성, 수용성, 편의성 영역에 대해 국내 노인 대상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존 국외 연구에서 도출된 개념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부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고, 국외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식품환경 요인이 도출되었다.

3) 식품환경 요인 중 물리적 접근성에서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대상자 간의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저소득가구 노인 대상자는 거리와는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식품 가격이 저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지하철 인접의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외에서 제시된 건강한 식품 선택 및 섭취에 중요한 식품환경 측정 항목으로 집에서 식료품점의 가까운 거리 요인은 국내 저소득가구 도시 노인에서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4) 기존 국외 연구 결과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식품환경 요인으로 수용성 영역에서는 국산 제품의 판매, 그리고 편의성 영역에서는 배달 서비스와 소량 포장 판매 여부가 의미 있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국외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역사회 식품환경 평가 영역이 국내 도시지역 노인에서도 적용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국외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식품환경 요인도 도출되었다. 이러한 식품환경 요인들은 향후 국내 지역사회 식품환경 평가 도구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부 식품환경 요인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cknowledg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R1A2C1084372).

ORCID

Narae Yang: <https://orcid.org/0000-0002-6592-4584>

Kirang Kim: <https://orcid.org/0000-0003-3054-8758>

References

- Lee K, Kim SH, Heo SY, Choi JH, Park IH.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2018. Naju: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8.
- Afshin A, Sur PJ, Fay KA, Cornaby L, Ferrara G, Salama JS et al. Health effects of dietary risks in 195 countries, 1990–2017: a systematic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7. *Lancet* 2019; 393(10184): 1958-1972.
- Lee CH, Lee SE, Jang MJ, Choe JS, Park YH, Kim Y. An analysis of food purchase accessibility and availability for rural households: The cases of Bibong-myeon and Maesong-myeon, Hwaseong-si.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014; 25(4): 581-600.
- Kim DH, Lee CK, Seo DY. Food deserts in Korea? A GIS analysis of food consumption patterns at sub-district level in Seoul using the KNHANES 2008-2012 data. *Nutr Res Pract* 2016; 10(5): 530-536.
- Haynes-Maslow L, Leone LA.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od environment and adult diabetes prevalence by country economic and racial composition: an ecological study. *BMC Public Health* 2017; 17(1): 648.
- Shim JE, Hwang JY, Kin K. Objective and perceived food environment and household economic resources related to food insecurity in older adults living alone in rural areas. *BMC Geriatr* 2019; 19(1): 234.
- Momosaki R, Wakabayashi H, Maeda K, Shamoto H, Nishioka S, Kojima K et al. Association between food store availability and the incidence of functional disability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Results from the Japanese gerontological evaluation cohort study. *Nutrients* 2019; 11(10): 2369.
- Dean WR, Sharkey JR. Rural and urban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s between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food environment and fruit and vegetable intake. *J Nutr Educ Behav* 2011; 43(6): 426-433.
- Glanz K, Sallis JF, Saelens BE, Frank LD. Healthy nutrition environments: Concepts and measures. *Am J Health Promot* 2005; 19(5): 330-333.
- Boswell N, Byrne R, Davies PSW. Family food environment factors associated with obesity outcomes in early childhood. *BMC Obes* 2019; 6(1): 1-11.
- Bodor JN, Rose D, Farley TA, Swalm C, Scott SK. Neighbourhood fruit and vegetable availability and consumption: The role of small food stores in an urban environment. *Public Health Nutr* 2008; 11(4): 413-420.
- Jetter KM, Cassady DL. The availability and cost of healthier food alternatives. *Am J Prev Med* 2006; 30(1): 38-44.
- Moore LV, Diez Roux AV, Nettleton JA, Jacobs DR. Associations of the local food environment with diet quality: A comparison of assessments based on surveys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Am J Epidemiol* 2008; 167(8): 917-924.
- Lytle LA. Measuring the food environment: State of the science. *Am J Prev Med* 2009; 36(4): 134-144.
- Bryant M, Sahota P, Santorelli G, Hill A. An exploration and comparison of food and drink availability in homes in a sample of families of White and Pakistani origin within the UK. *Public Health Nutr* 2014; 18(7): 1197-1205.
- Mercille G, Richard L, Gauvin L, Kestens Y, Shatenstein B, Daniel M et al. The food environment and diet quality of urban-dwelling older women and men: Assessing the moderating role of diet knowledge. *Can J Public Health* 2016; 107(1): eS34-eS41.
- Caspi CE, Sorensen G, Subramanian SV, Kawachi I. The local food environment and diet: A systematic review. *Health Place* 2012; 18(5): 1172-1187.
- Drewnowski A, Vernez Moudon A, Jiao J, Aggarwal A, Charreire H, Chaix B. Food shopping behaviors and socioeconomic status influence obesity rates in Seattle and in Paris. *Int J Obes (Lond)* 2014; 38(2): 306-314.
- Williams LK, Thornton L, Ball K, Crawford D. Is the objective food environment associated with perceptions of the food environment? *Public Health Nutr* 2012; 15(2): 291-298.
- Glaser BG, Strauss AL.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Aldine; 1967.
- Shin GR.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ranslated version). 1st ed. United States of America original written by Strauss A, Corbin JM. Seoul: Hyunmoonsa; 2001. p. 91-110.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ealth effects of limited access to healthy food: obesity, chronic disease, and poor nutrition [internet].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cited 2020 Jan 10]. Available from: <https://www.cdc.gov/healthyplaces/healthtopics/healthyfood/obesity.htm>
- Sharkey JR, Johnson CM, Dean WR. Food access and perceptions of the community and household food environment as correlates of fruit and vegetable intake among rural seniors. *BMC Geriatr* 2010; 10(1): 32.
- Glanz K. Measuring food environments: A historical perspective. *Am J Prev Med* 2009; 36(4): S93-S98.
- Green SH, Glanz K. Development of the perceived nutrition environment measures survey. *Am J Prev Med* 2015; 49(1): 50-61.
- Pitt E, Gallegos D, Comans T, Cameron C, Thornton L. Exploring the influence of local food environments on food behaviours: A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literature. *Public Health Nutr* 2017; 20(13): 2393-2405.
- Love P, Whelan J, Bell C, McCracken J. Measuring rural food

- environments for local action in Australia: A systematic critical synthesis review.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19; 16(13): 2416.
28. Gustafson AA, Sharkey J, Samuel-Hodge CD, Jones-Smith J, Folds MC, Cai J et al. Perceived and objective measures of the food store environment and the association with weight and diet among low-income women in North Carolina. *Public Health Nutr* 2011; 14(6): 1032-1038.
 29. Black C, Moon G, Baird J. Dietary inequalities: What is the evidence for the effect of the neighbourhood food environment? *Health Place* 2014; 27: 229-242.
 30. Lytle LA, Sokol RL. Measures of the food environment: A systematic review of the field, 2007–2015. *Health Place* 2017; 44: 18-34.
 31. Giskes K, Van Lenthe FJ, Brug J, Mackenbach JP, Turrell G.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food purchasing: The contribution of respondent-perceived and actual (objectively measured) price and availability of foods. *Prev Med* 2007; 45(1): 41-48.
 32. Vilaro MJ, Barnett TE, Mathews A, Pomeranz J, Curbow B. Income differences in social control of eating behaviors and food choice priorities among southern rural women in the US: A qualitative study. *Appetite* 2016; 107: 604-612.
 33. Park E. A comparison of community health status by region and an investigation of related factors using community health indicators. *J. Korean Acad* 2012; 23(1): 31-39.